



連載〔9〕

잃어버린 古代都市

IX. 世界の 7大 불가사의-(空中庭園)

발굴된 宮殿의 유적은, 나보포라살 왕(B. C 625~605 在位)이 창건하고 그의 아들 네브카도네칼에 의해서 완성된 新바빌로니아 時代의 호화로운 생활을 상징하는 데에 충분한 것이었다.

宮殿 전체는 동서의 길이가 322 미터, 남북의 길이가 190 미터에 달하는 사다리꼴인데 다섯개의 建築群과 그것에 부수되는 또 다섯개의 中庭으로 구성되어 있다.

行列道路에 면한 동측이 입구를 이루고 있으며 그 현관을 빠지면 제1 中庭(66×42 미터)으로 통한다. 그 中庭을 사이에 두고 북측과 남측에 왕의 거실과 근위대의 숙소가 있다.

다음엔 2 개의 문을 통하여 제2 中庭으로 들어가면 북측이 特別居室이고 남측이 謁見室(27×9 미터)로 되어 있다. 다시 장대한 현관을 지나 제3 中庭으로 들어서면 이곳이 대략 궁전의 중앙부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있는 여러 建築群은 화려하기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남측은(玉座)라고 불리는 大廣室(52×17 미터)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깊숙이 있는 제5의 中庭 주변이 부인의 거실인데, 이곳이 바로

하렘과 왕의 프라이빗한 私室이었던 것 같다.

이 宮殿의 설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왕의 거실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關門이 배치되어 있어 왕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배려가 참으로 면밀하였던 것이다.

한편, 궁전유적의 발굴과 병행해서 이 궁전 북동부의 구석진 곳에서 기묘한 건물유적이 하나 발견되었다. 건물 전체의 크기는 42×30 미터 미만이었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보기 드문 아치형을 하고 있으며 그 설계부터가 이상하다.

7 개의 작은 방이 약간 넓은 통로들 사이에 두고 좌우로 균형있게 배치되어 있으며, 그 주위를 두꺼운 벽이 사다리꼴로 되면서 內廊을 형성하고 다시 그 주위를 같은 두께의 벽이 에워싸면서 外廊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북측과 동측이 궁전의 구내와 접하고 있는데 두꺼운 벽이 그 경계를 이루고 있다.

골데와이는 이 기묘한 유적구조를 보고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空中庭園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 이유로는 外廊의 서쪽에 위치한 방에서 바빌로니아 이외의 고대사회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종의 기계식 우물—이 우물은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과, 또 바빌론에 관한 粘土板의 기록에 따르면 石材가 사용된 것은 엘 카슬의 언덕 남쪽에 있는 성채의 북측 벽과 空中庭園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골데와이의 이같은 推定을 부인할만한 자료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傳承되는 바에 따르면 이 空中庭園은 세미라미스女王이 건립한 것이라는 설이 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그보다도 네브카도네칼이 造營했다는 추측이 유력하다. 왕은 아미티스를 왕비로 맞이했는데, 산간지역인 메디아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바빌론의 평탄한 땅에서의 생활이 때로는 단조로웠을 것이다. 그리하여 왕은 왕비의 무료함을 덜어주기 위해 그녀의 고향을 방불케 하는 人工庭園 건조를 발상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바빌로니아인이 옛부터 사용해 온 양수기를 이용해서 옥상으로 물을 끌어 올려 테라스 위에 울창한 숲을 출현시킴으로써 왕비로 하여금 먼 고국의 情景를 눈앞에 그리게 하려 한 것으로 생각해 볼만도 하다.〈心象〉